

융복합 예술 미래를 보는 다양한 시선

ACT Festival



'뉴아르'를 체험하는 관람객의 눈에 비친 이미지.

(ACC 제공)

간 영화제 AR 몰입형 영화부문 대상작 '뉴아르' 공개, 사운드아트와 거장 료지 이케다의 '울트라트로닉스' 공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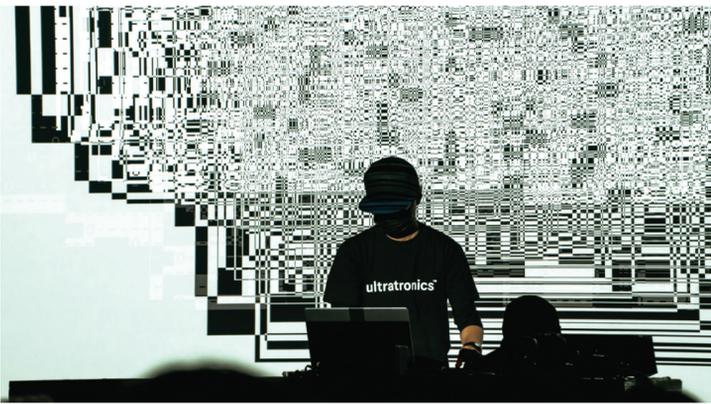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이 매년 여는 'ACT(Arts&Creative Technology) 페스티벌'은 대표적인 융복합 예술 축제다.

올해도 'ACT 페스티벌 2024'이 ACC에서 열린다. (27일부터 29일까지 예술극장1, 극장3, 복합스튜디오 등).

'만약에?: 미래를 보는 다양한 시선'을 주제로 펼쳐지는 제9회 ACT 페스티벌은 오디오 비주얼 콘서트(퍼포먼스)를 비롯해 AR홀로그램 전시, 필름 스크리닝, 강연, 토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주제인 '만약에?: 미래를 보는 다양한 시선'은 예술, 기술, 영감(상상력)을 매개로 펼쳐질 미래의 모습을 상징한다. 지금까지 제 분야의 예술가들이 작품에 투영했던 이미지와 세계는 시간이 흘러 현실화된 부분이 적지 않다. 융복합 예술 축제를 매개로 언젠가 다가올 미래사회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이강현 전당장은 "Arts와 Creative, Tech-



Ryoji Ikeda ultratronics [live set] at WWW X Tokyo JP Photo by Ry.

nology 등 융합을 매개로 펼쳐지는 ACT 페스티벌은 창작자이라는 전당의 정체성과도 연계된다"며 "특히 사운드아트와 거장 료지 이케다의 비주얼 콘서트를 비롯해 전시, 강연, 토크 등은 미래 예술의 트렌드와 맞물려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언급한대로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일본을 대표하는 전자음악 작곡가(작가)인 료지 이케다의 오디오 비주얼 콘서트 '울트라트로닉스'가 펼쳐진다.

최근 발매된 '울트라트로닉스'를 모티브로 진행되며 료지 이케다가 국내 첫 선보이는 공연이

융복합예술 'ACT 페스티벌' 퍼포먼스·AR홀로그램·강연 칸 국제영화제 AR 몰입형 영화부문 대상 '뉴아르' 공개

What If? 만약에?

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료지 이케다는 9년 만에 ACC를 재방문한다.

'울트라트로닉스'는 료지 이케다가 1989-1999년 녹음한 오디오 자료와 지난 2013-2022년 작곡한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평자들이 따르면 산술적이고 계산적인 사운드를 탐구

해 자신만의 시그니처 사운드로 만들어내는 료지 이케다의 음악세계가 잘 구현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올해 칸 국제영화제 AR 몰입형 영화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뉴아르'가 한국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다. 몰입형 AR기술을 매개로 독창적인 영화적 감성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희 전시기획과장은 "상영되는 '뉴아르'는 배우 문소리의 더빙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는다"며 "예술과 기술의 융합으로 관객들은 새로운 차원의 영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영과 맞물려 '뉴아르' 영화 감독인 피에르-알랭 지로의 토크도 28일 펼쳐진다. 이 자리에서 지로 감독은 영화 제작 과정은 물론 AR 기술의 차용, 자신만의 예술적 관점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한편 '오디오비주얼 콘서트'에는 료지 이케다를 비롯해 404.제로, 아키코 나카야마 & 히로시 와타나베, 피스타룬, 네오 지오데시야 등 사운드 아티스트가 대거 참여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민화 '백자와 우롱차'

김보민 '옥수수'

이이다 '다-데이, 프라이데이'

'광주여성영화제' 단편공모 본선 진출작 12편을 만나다

11월 6~10일 광주극장·CGV 광주금남로점

올해로 15회를 맞은 '광주여성영화제'가 오는 11월 6~10일 광주극장 및 CGV 광주금남로점에서 열린다.

'카운트 업(Count Up)'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펼쳐지는 영화제 개막을 앞두고 '단편공모부문' 본선 진출작 12편 라인업이 최근 공개됐다.

지난 7월 말부터 8월 25일까지 진행된 '2024 권 단편공모'에는 지난해보다 42편 증가한 456편이 출품됐다.

허다희 감독의 '점점'을 비롯해 이민화 작 '백자와 우롱차', 이이다 작 '다-데이, 프라이데이', 최범찬 감독의 '복순씨의 원데이 클래스'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임지선 감독의 '헬렌: 두 개의 교복치마'와 심이안의 '뺨고', 이경호 감독의 '혼자', 최승현의 '영아의 섬' 등도 상영을 예고했다.

이외 김보민 감독의 '옥수수', 김소희·전도희의 '마미디어', 이은지의 '영원한 유산', 이다솔·김가

은 작 '굿바이 트라우마-너에게 이름을 줄게'도 관객들을 찾아온다.

이들 작품은 광주여성영화제 기간에 CGV 광주금남로점에서 상영한 뒤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 감독상은 상금 100만 원, 특별상 및 관객상은 각각 50만 원을 수여.

예심위원단은 "심사 과정에서 '세어 내다(Count Up)'라는 이번 영화제 의미를 되새기며, 여성들의 삶과 죽음을 밀도 있게 다룬 작품들에 주목했다"라며 "상영작들은 여성들이 마주하는 난관과 이를 극복하는 연대의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계절을 잊은 철부지 가을, 철 들게 하는 큰 나무 얼굴'

11월 20일까지 비움박물관 전시

올 여름은 유독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9월임에도 늦더위가 가시지 않아 한낮이면 30도까지 기온이 올라간다.

그럼에도 가을은 가을이다. 아무리 여름이 가기가 아쉬워 심술을 부린다 해도 계절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는 법.

가을의 정취와 나무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비움박물관(관장 이영화)은 '계절을 잊은 철부지 문명의 가을, 철 들게 하는 큰 나무 얼굴'전을 연다. (오는 11월 20일까지 진행)

주요 전시품은 곡식을 보관하던 독과 단지를 덮었던 다양한 모양의 나무뚜껑이다.

나무는 '살아서 백년, 죽어서 백년'이라는 말이 있다. 나무의 미덕과 은전을 상찬한 말로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다는 의미가 내재돼 있다. 살아서는 맑은 공기와 그늘, 열매를 제공하고 명을 다한 후에는 가구를 비롯해 건축으로 쓰여진다.

이번 전시에서는 나무뚜껑을 통해 옛 선조들의 정신과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농민들이 손으로 만든



2024 비움박물관 가을기획전시.

(비움박물관 제공)

나무뚜껑은 그 다채로운 모양으로 마치 얼이 담긴 사람의 얼굴 같은 이미지를 발한다.

전시에서는 것과 갖집도 볼 수 있다. 선비의 자존심과 품위가 담긴 것과 이를 보관하던 갖집으로 검약, 배움을 실천했던 조상들의 삶과 지혜를 가늠할 수 있다.

이영화 관장은 "유난히 무더웠던 올 여름도 어느새 저물고 수확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다. 비움박물관에서 마련한 이번 전시는 나무의 미덕, 선비와 조

상들의 절약과 지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했다"며 "다양한 전시품을 통해 문명사회의 이기보다 옛 사람들의 지혜와 배움을 사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 유일의 사립 민속박물관인 비움박물관은 3만여 점에 이르는 방대한 소장품이 있으며 계절마다 전시품을 선별, 전시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충효동 분청사기 재조명'

국립광주박물관, 26일 학술대회

무등산 충효동 분청사기는 품질이 우수해 당시 왕실에 납품될 만큼 인정을 받았다. 자유분방하면서도 화화적인 특징은 도자학적으로도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충효동 분청사기를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최흥선)은 26일(오후 1시) 박물관 대강당에서 '광주 충효동 분청사기 재조명'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특히 학술대회 당일에는 발굴된 미공개 도편을 오전 10시부터 박물관 체험학습실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먼저 강경숙 총박대 교수가 '광주 충효동 발굴 60년의 궤적'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지난 60년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의미를 조명할 예정이다.

1부 '광주 충효동 가마터 운영과 과제'에서는 '광주 충효동 가마터 운영시기-충위별 시기 검토'(박형순 국가유산청), '소비유적 출토 충효동 분청사기 일고찰'(최명지 국립광주박물관), '광주 충효동 요지 정책현황 및 정비 과제'(박영재



광주시)가 발표된다.

'광주 충효동 분청사기의 특징'을 주제로 한 2부에서는 '광주 충효동 출토 명문 분청사기의 특징과 의미-공남용 명문 분청사기를 중심으로'(박경자 국가유산청), '15세기 충효동 분청사기와 조선 왕실과의 관계(안세진 국가유산청)', '광주 충효동 출토 분청사기 제기의 출토 현황과 성격'(김현정 국립중앙박물관)이 발표될 예정이다.

강경숙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 토론시간에는 발표자와 김윤희(국가유산청), 박정민(명지대학교), 권혁주(민족문화유산연구원), 성현주(부산박물관), 권소현(국립익산박물관), 조은정(고려청자박물관)의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최흥선 관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충효동 분청사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아울러 향후 과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